

남 그러니까, 그게. (사이)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편하게 말 놓으세요, 편하게.

여 (좋아하며) 사귀는 사이. 사귀는 사이면 그래도 돼요?

남 그럼요, 물론이죠.

여 그럼, 이제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, 난 편하게 말 놓을게. 넌 불편하게 말 놓지 마.

남 네..... 예?

여 왜, 싫어?

남 (귀여운 척하며) 응, 싫어. 왜? 왜 안 돼? 나도 말 놓을 거야. 나도 막 편할 거야. 나도 막 친하게 굴 거라고. 왜냐하면, 왜냐하면, (사이) 이제 우리.

여 (동시에) 사귀는 사이니까.

남 (동시에) 사귀는 사이니까.

여 (부끄러워하며) 사귀는 사이.

남 (옆구리를 찌르며) 사귀는 사이.

여 아야.

남 아파요? 호~

여 어머, 다 나왔어요. 근데 누구세요?

남 저요? 남자친구요. 누구세요?

여 저는, 여자친구요. 근데 왜 다시 존댓말 써요?

남 어머, 그랬네.

여 괜찮아. 내가 누구게?

남 여자친구. 내가 누구게?

여 남자친구.